

군산 물류단지 개발계획 조건부 승인

운양개발, 올해 하반기 착공 2018년까지 838억 3300만원 투입 물류·상류시설 완공 계획

군산 새만금지구 및 국가산업단지 등의 배후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군산 지역 거점 물류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5일 도는 운양개발(주) 이재운이 신청한 군산물류단지개발 계획 승인 안이 제2차 전라북도 물류단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산물류단지개발을 승인·고시하는 대로 군산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산물류단지개발 사업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으로 군산시 개서동 924번지(육너저수지 부근) 일원에 1단계 32만9,000㎡와 2단계 16만5,000㎡ 등 총 약 49만 4,000㎡로 조성돼 군산보급단지와 군산항의 물류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물류단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군산물류단지개발사업 2단계 추진 여부 명확한 제시와 이에 따른 진입도로, 교차로, 내부 도로망체계 및 경관 분석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보완 등을 둘러싸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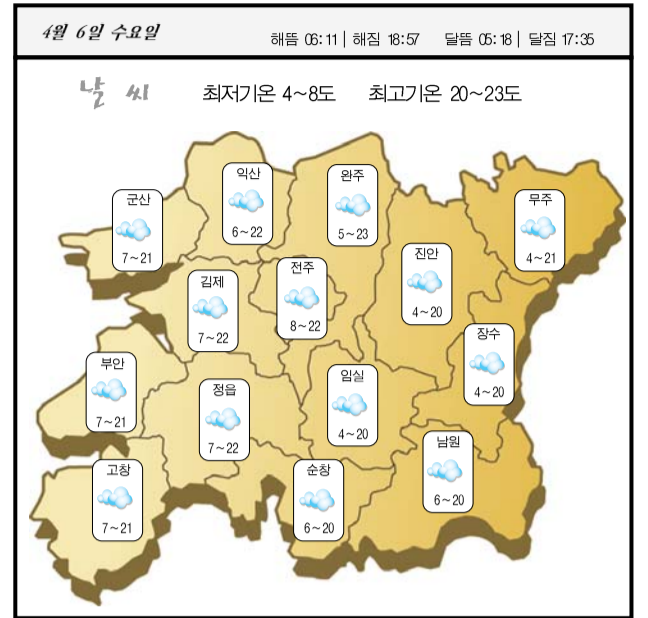
군산물류단지 승인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은 생산·복지지역을 유통산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물류단지에 따른 자연취락지역지구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하는 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포함됐다.

또한, 군산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과 창고가 배치되는 물류시설이 60% 이상으로 계획되고, 상류시설에는 전문상가(기계/공구상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 배치와 주거시설 및 가공시설 등 지원시설 등이 배

치되게 된다.

앞으로 군산물류단지 조성공사는 토지매입(현재 82%)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 201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838억 3,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군산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새만금을 비롯한 군산지역 물류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물동량의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또한 국내의 우수한 물류기업 입주 및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웃음과 재미 선사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 멋있어요

목·금 13시·토 9시부터 7개조로 세분화해 운영 관광객 참여 이벤트 진행

전주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가 관광객에게 해학과 재미를 주는 한옥마을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해 노인일자리 제공과 관광콘텐츠 확보를 위해 도입한 한옥마을 포도대 어르신 50여명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포도대장과 포도대원 복장을 갖추고 전주한옥마을 주요 거리를 순찰하며 질서를 유지해왔다. 이들은 관광객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운영시간을 매주 목·금요일 오후 1시와 토요일 오전 9시부터로 변경하고, 포도대 역할도 당초 2개조로 나눠 순찰활동과 기념촬영에 중점을 두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7개조로 세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포도대원들은 관광객들과 함께 ▲웃음이 가워야워보 ▲포도대장과 사진촬영 ▲왕(王)신 신고 풀싸 ▲활 쏘는 포폴 ▲막걸리 한상 주시오 ▲알 개는 포폴 ▲향고 보물찾기 등 다양한 관광객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



전주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가 관광객에게 해학과 재미를 주는 한옥마을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 참여 어르신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전통 해학과 즐거움을 선보여 전주한옥마을이 신·구 세대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색적인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의 관광객 참여 이벤트가 전 주민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확보로 '세계 속의 관광도시 전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오랜 사회경험을 통해 습득한 어르신

들의 다양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인 만큼,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이준식 교육부장관 군산대 방문

무궁화동산 조성 기념식수

5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군산대학교를 방문해 무궁화, 영산홍, 호랑기시나무를 식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식 부총리 및 군산대 나이군 총장, 교육부 직원, 군산대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대학교가 국립대학교 최초로 교내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면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교내 산학협력관 주변 일대 2800㎡에 무궁화 2500주와 영산홍 1000주를 식목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군산대학교가 역

적적으로 추진 중인 특성화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학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교내 황룡도서관 앞에 호랑기시나무 1주를 기념 식수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군산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참여해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나타났던 무궁화가 만개한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산림청과 함께 2017년까지 전국 1151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교육부 청사에 작은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학업 중단 시 2주 숙려기간 운영

도교육청, 상담 등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학업중단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2주간의 숙려기간을 운영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 중단 징후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주간 숙려 기간을 뒤 각종 상담과 진로체험,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 중단 숙려제도는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숙려할 기회를 뒤 한한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생 282명(0.28%), 중학생

194명(0.29%), 고등학생 943명(1.31%) 등 총 1,419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대인관계나 학업, 학교 규칙 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 2주간 Wee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와 진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이 기간에 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보여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을 연장해 인성 캠프, 예체능체험, 대안 교육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고민형 기자

2016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2016. 4. 7~10 전주실내체육관

2016. 4. 7 PM 4:30 / 2016. 4. 7~9 PM 5:00

LoL Champions Korea spring 2016

2016. 4. 10 PM 1:00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 배틀

LoL Champions Korea spring 2016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 배틀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ROX vs JIN AIR	Afreeca vs CJ	KT vs Kongdoo	한국팀 VS 중국팀
Kongdoo vs SAMSUNG	SKT vs SBENU	JIN AIR vs Longzhu	

예매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전국 최대의 e스포츠 열기를 함께 느껴보세요!

주최 | 전라북도 | 전주시

주관 | KESPA | BILZARD | CJ E&M | OGN